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 국민의 소리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1월 3주차 주간동향 [11.14.~11.20.]

[2022.11.23.(수), 제6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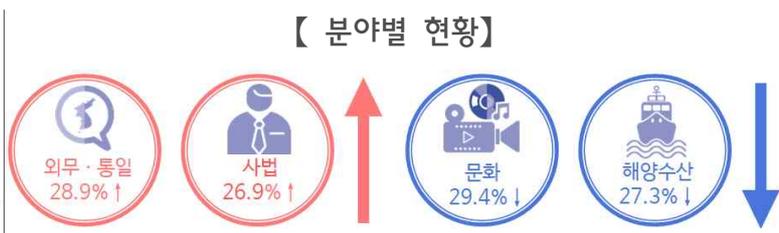
###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 순방	72,276	불법 주정차	76,292	생활불편
2	정상회의(대통령 순방)	34,557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833	생활불편
3	이태원 사고	32,216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3,725	생활불편
4	정상회담(대통령 순방)	28,874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048	생활불편
5	소비자물가	18,477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153	생활불편
6	전용기(대통령 순방)	16,430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104	생활불편
7	기준금리	16,308	시선유도봉 설치(불법주정차 방지)	2,099	생활불편
8	환율	14,032	검단 지하 통합개발(상업시설 허가 요구)	2,163	지역이슈
9	국정조사(이태원 사고)	13,865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1,628	지역이슈
10	재유행(코로나19)	12,117	버스 노선(검단신도시 버스 신설 요구)	1,589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11.14.~11.20.)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1.10~11.16.)

### 민원 동향

- 11월 3주차 민원은 241,174건(일평균 34,453건)으로 지난주(260,460건) 대비 7.4% 감소 ※ 안전신문고(50.9%), 국민신문고(31.9%), 새을 등(17.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5.0%), 경북(1.4%) 등 증가한 반면, 광주(15.6%), 충남(10.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외국국적 결혼 비자 신청 관련 문의 및 여권 발급 관련 민원 등 외무·통일, 사법 순으로 증가



## 주요 민원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관련 민원 (225건)

-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관련, 예비소집<sup>11.16.</sup> 및 수능시험<sup>11.17.</sup>, 이의신청<sup>11.17.~21.</sup> 실시 - 수능 실시 전 시험제도 및 운영 방법 개선 등 수능 시행 관련 민원과 실시 후 부정행위 및 듣기평가, 시험감독 개선 등 민원
-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

- 딸이 ○○고에서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영어 듣기평가가 하나도 안 들려서 풀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뒷 시험까지 망쳤다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3, 4문제는 인생을 가를 수도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고 시험장 전체의 문제였네요! 미리 시험장 점검은 감독기관의 기본 아닙니까? (11.19., 인천광역시교육청)
- 원래 출제된 유형 그대로가 홀수형, 출제자들이 최초 배열해 놓은 지문배열(선지)을 뒤섞어 놓은 것이 짝수형인데,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이들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수능시험 홀짝 유형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202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관련 자료(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보도자료**  
2022. 7.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043-931-0615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위생팀 ☎ 043-931-0634, 063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만)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2. 7. 4.(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각시 도별·자치단체별 입시 일정	
보도 일시	(일) 2022. 10. 12.(수) 12:00 (화) 2022. 10. 13.(목) 09:00	바로 일시	2022. 10. 12.(수)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혜림 (044-203-6368)		
<출판>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홍표형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총시행일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작동(통화 및 문자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 주요일정 】

- (시험공고) 2022.7.4.
- (원서접수) 2022.8.18.~9.2.
- (시험실시) 2022.11.17.
- (이의신청) 2022.11.17.~21.
- (답안채점) 2022.11.18.~12.9.
- (성적통지) 2022.12.9.

### 【 주요 언론보도 】

**ChosunBiz**

2023학년도 수능,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  
입력 2022.11.17. 오전 8:02

지난해 이어 문·이과 통합으로 실시  
출입성·경정고사성 비율 26년 만에 최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된다. 이날 수능이 끝나면 오는 19일부터는 대학별 수시전형 눈물 면접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시작된다.



<ChosunBiz(2022.11.17.)>

**경향신문**

수능 126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 수능 출제위원장 "예년 출제기조 유지" [2023 수능]  
입력 2022.11.17. 오전 9:01 수정 2022.11.17. 오후 1:47

"국어·영어영역, 다양한 지문·자료 활용 출제 수학·영구 제2외국어·한문 사고력 중심 평가"



<경향신문(2022.11.17.)>

**NEWSIS**

"이런 적 처음" 수능 영어듣기 이의신청만 50여건... 왜?  
입력 2022.11.19. 오전 8:00 수정 2022.11.19. 오전 8:12

**기사내용 요약**

"남성 목소리 나올 때마다 음질 뒤편개자" 인천·서울·대구 등 동시다발적 이의제기 "난도 어려웠는데 음질 문제까지 겹쳐" "연봉" 외 4교시까지 지장 가능 수도"



<NEWSIS(2022.11.19.)>

## □ 수원 ◇◇고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 요구 (146건)

- 영동고속도로 노선이 확장<sup>91년</sup>되면서, 도로 바로 옆에 학교가 위치하게 되었고, 현재는 안산-북수원 구간이 6차선에서 8~10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
  -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 등 추가적인 소음저감 대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동원고는 91년 영동고속도로 노선이 확장되면서 창문을 닫아야만 정상 수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음 때문에 듣기평가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안산-북수원에 이르는 노선이 6차선에서 8~10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소음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합니다. (11.18., 한국도로공사)

### 【 주요 언론보도 및 학교 위치 】

<p><b>NEWSIS</b> 수도권 &gt; 경기남부</p> <p>'고속도로 확장'...수원 동원고 '방음터널' vs 도공 '방음벽 상황'</p> <p>등록 2021.03.07 12:45:49</p> <p>&lt;NEWSIS(2021.3.7.)&gt;</p>	<p><b>중부일보</b></p> <p>영동고속도로 소음 커지는데... 수원 동원고 "고작 방음벽" 반발</p> <p>수원=김승원 기자 2021.02.08</p> <p>도공, 예측수용 543m 규정에 부합 18m 방음벽만 설치... 터널은 거부 김승원 의원 SNS에 "학습권 침해"</p> <p>&lt;중부일보(2021.2.8.)&gt;</p>	<p>&lt;출처:네이버 지도&gt;</p>
---	--	--------------------------

## □ 인천 △△초 · □□초 통학구역 조정안 철회 요구 (160건)

- 입주를 앞둔 인천 ☆☆단지 아이들은 교육청의 과밀 예방책에 따라 영종초와 별빛초로 분산 배정 예정
  - 영종초 학생들의 실거주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학군 지정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과밀로 인한 아이들의 기본 교육권 등, 쾌적한 교육환경만을 바라며, 분산 배정을 수용하고자 했지만 영종초 일부 학부모의 강한 반발로 인해 다시 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밀 해소를 위해 영종초 학생의 실거주를 확인하여 전학 요청 드립니다. 또한 ☆☆단지 모두가 영종초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와 상관 없이 나뉜 동별 학군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을 요청합니다. (11.15., 인천광역시교육청)

# 알 림 관

##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 ([www.pias.go.kr](http://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 요구	1AA-2211-0593729	한국도로공사

##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http://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http://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